하상주보

2021년 2월 21일 (나해) 사순 제1주일 제1840호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마르 1,12-13)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11세기, 채색 삽화, 국립 박물관, 뉘른베르크, 독일

[제1독서] ····· 창세 9,8-15

[화답송] ····· 시편 25(24),4-5ㄱㄴ.6과 7ㄴㄷ.8-9 (◎ 10 참조)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 1베드 3,18-22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 마르 1,12-15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전 화 (703)968-3010 팩스 (703)968-3013
홈페이지 www.stpaulchung.org 이메일 sthasang@gmail.com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그때에 12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The Spirit drove Jesus out into the desert,
and he remained in the desert for forty days,
tempted by Satan.
He was among wild beasts,
and the angels ministered to him.
After John had been arrested,
Jesus came to Galilee proclaiming the gospel of God:
"This is the time of fulfillmen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성화 해설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작은 판넬에 제작된 이 작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이 모두 표현되어 있다. 왼쪽에는 악마가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유혹하고 있으며, 가운데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며 유혹하고 있다. 오른쪽에는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며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유혹을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극복하시며 악마를 물리치셨다. 〈정웅모 신부의 복음을 담은 성화〉

✝복음 묵상

오늘 복음 말씀의 무대는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을 머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고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십 년간의 유랑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투정을 부렸으며, 하느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믿다가도 하느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였던 '노예 집단'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그 척박한 공간에서 조금씩 성숙합니다.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성장과 성숙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노예 신분이었어도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안정적인 이집트에서는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기는 아니어도 빵이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익숙하고 안정된 이집트에서 벗어났을 때,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 백성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광야는 편안함보다 불편함을, 생명보다 죽음을, 희망보다 절망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불편함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절망 가득한 신음 때문에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체험은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시간이 아닌, 머물러야 하는 은총의 시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2021년 사순 시기 담화(부분)

사순 시기는 믿음, 희망, 사랑의 쇄신을 위한 때

- 회개와 기도와 가진 것을 나누는 여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스카 거행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사순 여정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필리 2,8) 분을 기억합시다.

이 회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의 "생수"를 길어 올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형제자매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파스카 성야에 우리는 세례 서약을 갱신하고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듯이(마태 6,1-18 참조), 단식과 기도와 자선은 우리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고 드러냅니다. 가난과 극기의 길(단식), 가난한 이를 위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자선), 그리고 자녀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기도)는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살아 있는 희망과 실질적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여정을 지속하게 해주는 "생수"인 희망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셨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생수"(요한 4,10)를 주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인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을 마시는 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신비를 통하여 충만하게 주실 성령,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선사해 주시는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수난과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실 때,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마태 20,19)이라며 이 희망에 관하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 열린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오, 폭력과 불의 또는 사랑이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역사가 끝나지 않음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열린 성심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위태롭고 불확실해 보이는 요즈음과 같은 시련의 때에 희망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 시기는 우리가 빈번히 착취해 온 당신의 피조물들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돌보시는 하느님께로 되돌아서는 희망의 시기입니다.(「찬미받으소서」, 32-33항, 43-44항 참조) 바오로 성인은 화해에 우리의 희망을 둘 것을 촉구합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2코린 5,20).

우리의 회개 과정의 중심에 있는 성사를 통하여 용서받음으로써 우리도 이웃에게 용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사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지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느님의 용서는 형제애의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사순 시기 동안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격려의 말"을 전합시다.

"이러한 말은 위로와 위안이 되며 힘과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이는 "비하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멸시하는 말이 아닙니다"(「모든 형제들」, 223항).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은 때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걱정거리나 긴급한 일들을 제쳐두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미소를 선사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고 만연한 무관심 가운데에 경청하고자 합니다"(「모든 형제들」, 224항).

모든 이를 위한 관심과 연민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랑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합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이들이 근심에 휩싸이거나 외로워하거나 아프거나 집이 없거나 멸시당하거나 궁핍한 처지인 것에 아파합니다. 사랑은 마음의 도약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 밖으로 나가게 하고 나눔과 친교의 유대를 이루게 합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고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우리의 가족, 친구, 형제자매로 바라보도록 해 줍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 결코 고갈되지 않고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 예언자에게 빵 한 조각을 내어놓은 사렙타 과부의 밀가루 단지와 기름병과 같고(1열왕 17,7-16 참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신 빵 다섯 개와 같은 것입니다(마르 6,30-44 참조). 또한, 작든지 크든지 기쁘고 소박하게 베푸는 우리의 자선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소외와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이때에,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1). 애덕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의 말을 전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른 이들이 깨닫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회개와 기도와 가진 것을 나누는 여정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라는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믿음과 성령의 숨결이 불러일으키는 희망과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한없이 샘솟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서 언제나 충실하신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신 사랑의 현존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스카의 빛을 향한 여정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번역 전문 보기 : https://cbck.or.kr/Documents/Pope/Read?doc=20210022&doctype=1&gb=T〉
〈영어 :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en/messages/lent/documents/papa-francesco_20201111_messaggio-quaresima2021.html〉

the season of LENT

사순절의 일상 기도

아버지 하느님,
저는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슬퍼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위로하게 하소서.
혹시 동정적인 말 한 마디나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게 하소서.

절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격려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유혹에 넘어진 사람을 만나면,
부드러운 말로 권유하고 올바른 표양을 보임으로써 유혹에 항거하게 하소서.

근심걱정에 찌든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모든 불안을 당신께 맡겨 드려 맑은 얼굴로 웃게 하소서.

일에 지친 사람을 만나면,
손을 내밀어 그의 짐을 들어주게 하소서.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나를 도우시어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비뚤어졌음을 깨닫게 하소서.

행복에 겨운 사람을 만나면,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소서. 그들을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작자 미상)

감사합니다 2021년 초 봉헌자(추가)

안윤민(바실리오), 안은영(수산나), 안광훈(프란시스코), 안광준(라우렌시오), 김 안드레아, 이 율리안나, 김 안젤로,
김 안젤라, 김도형, 김동우, 박용걸(아우스딩), 박완다(브릿지다), 채광엽(디모테오), 채승연(레이철),
송상회(토마스 아퀴나스), 송춘성(프리실라), 김옥임(에밀리아), 전원기(프란치스코), 강상옥(베드로), 임수정(요셉피나)

1 부활 판공성사 안내

- 매 미사 30분 전, 매주 수요일 오후 6:30 ~ 8시까지 성당에서 판공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성체 현시도 합니다.

The Light is ON for You

사순시기 동안 알링톤 교구와 워싱턴 대교구의 모든 성당은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오후 8시**까지 고해성사를 실시합니다. 가까운 성당을 찾아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helightison.org/

#TheLightIsOn

2 2021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참여 현황

-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계층 등을 위한 알링턴 교구의 사업인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신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라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2월 18일 현재

	세대수	후원 세대	참여율
St.Paul Chung	2,366	186(+61)	8%
알링턴 교구	150,292	14,945	12%

3 첫 영성체와 견진성사반 모집

- 첫 영성체반(3-5학년 학생) : 2월 27일(토) 오후 3시 첫 수업(매주 토요일 3시)
- 견진성사 교리반(7-12학년 학생) : 3월 3일(수) 오후 7:30 첫 수업 (매주 수요일 오후 7:30)
- 문의 : 윤정 보일(클레어) 교감 spc15.re.admyc@gmail.com

4 주일학교 미사(English Mass) 토요일 오후 5시

- 학생 미사 : 2월 27일(토) 오후 5시
- 부모님들의 관심속에 자녀들이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온라인 봉헌 협조 안내

-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성껏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신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은행과의 여러 가지 사정상 주일 온라인 봉헌액을 **$5 이상**으로 제한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카리타스 원주 이사회 소집

- 2월 27일(토) 오후 3시, 친교실

7 2차 헌금 Black and Indian Mission

- 이번 주일은 Black and Indian Mission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 부활제대 장식 꽃 봉헌 신청 받습니다.

- 부활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친교실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2017-2021)

-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사순 제1주간 :** 아모 1-5, 묵시 11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1년 2월 14일 (연중 제6주일)

주일헌금	$1,454.00
교무금	$8,0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3,130.00
온라인 봉헌	$6,978.00
감사헌금	$1,620.00
합계	**$21,242.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AM 1310 라디오 가톨릭 프로그램

2월 24일(수) 오전 6:15-6:45 | 2월 27일(토) 오전 8:00-8:30

- 워싱턴 가톨릭 소식
- CBCK 미디어 교리 - 성호경
- 김태진 주임 신부님의 2월 21일(주일) 미사 강론

※ www.dc1310.com에서 ▶ **생방송 듣기** 를 선택하시면 스마트폰을 통해 생방송으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성정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2월 25일(목) 오후 5:00-6:00
2월 26일(금) 저녁 8:00-9:00
2월 28일(일) 오전 6:00-7:00

Cox Ch.30, 830
Fios Ch. 30

1. CPBC 뉴스 2. 미니 순례 : 이탈리아 중북부 2부
3. 나의 하느님 : 쪽방촌 화가 윤용주 요한 사도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허진 변호사**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간호사,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뉴잉톤 오토바디** 자동차 바디, 정비, 페인트 김명곤 (바오로) 703-455-0008 Cell. 571-243-5037
안 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맛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703-832-7155	**소아전문 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윌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훈 (마르코) 센터빌,챈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생명보험 · 메디케어** **은퇴연금 · 사업체 보험** 홍마태오 703-969-8956 박소피아 703-969-8954	**커머셜 김준 부동산** 상업용, 투자용 건물 매매 리테일 / 오피스 리스 202-384-7301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덱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원 통증 · 재활** Woodbridge 지역 메디케어, 각종 보험 571-659-2540	**뉴욕라이프** 생명보험, 은퇴연금 자녀 저축보험 박수미(미카엘라) 571-263-1033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제니스김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제니스김 (베로니카) 571-723-6172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박정훈(요한) 치과** Family Dentistry 마운트 버넌 병원 근처 703-679-8959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ASSA 종합보험** 메디케어 상품, 카이저 보험 현재 플랜에 관한 무료 상담 문의: 최 클라라 703-649-2110	**워싱턴 노인 복지센터** 데이케어, 홈케어 문의: 데레사 데이케어 703-963-1234 홈케어 703-850-1100
경희 바울 한의원 비만, 중풍, 통증, 내과 전문 변형식(바오로) 703-907-9299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 아네스, RN 703-865-7370	**프렌즈 헬스케어/데이케어** 간병 및 물리치료 데이케어 서비스 임 에스더 703-819-036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형법, 개인상해, 파산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재무설계** 생명보험, 학자금, 은퇴연금, 롱텀케어 개개인에 맞는 플랜 설계 탁지은(안젤라) 202-431-0627
DK 건강 보험 1956년생 메디케어 무료상담 및 신청 정문기(윌리암) 703-598-3316 정선화(도로테아) 703-862-5395	**GCOOP 케어셀라** 천연 고기능성 화장품 맑고 투명한 물광피부 약속 김은희(글라라) 703-732-3836	**광고 접수중 !**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주일미사 생중계

매 주일 오전 10시 미사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생중계는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난 주일 미사도 본당 웹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www.stpaulchung.org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Youtube Channel
SPC Youth Media

미사 시간 (MASS SCHEDULE)

※ 미사 참여 신청자 중 **선착순 100명**까지 미사 참여 가능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05:00 PM	평일미사	화요일	07:30 PM
			수요일	11:00 AM
			금요일	07:30 P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 사도) |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